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노화 불안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김선희
호남대학교 간호학과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Aging Anxie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Nursing Students

Seon Hee Kim
Department of Nursing, Honam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노화 불안 및 심리적 안녕감의 정도와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G광역시 소재 총 2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 4학년 학생 263명이다. 자료는 구글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으며, SPSS/WIN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점수는 20.63점(30점 만점 기준)이었고,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는 76.88점으로 중립적이었다. 노화 불안 점수는 48.21점이었고, 하위요인 중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으며, 심리적 안녕감 점수는 78.51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노인에 대한 지식은 3학년보다 4학년, 노인간호학이론을 수강했거나 노인간호학실습을 경험한 학생의 점수가 높았으나, 태도는 학년이나 이론 및 실습 여부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노화 불안은 여학생과 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의 점수가 높았으며, 심리적 안녕감은 4학년과 실습을 경험한 학생의 점수가 높았다. 노인에 대한 지식은 심리적 안녕감($r=.15, p=.002$) 및 노화 불안($r=-.16, p=.009$)과 상관관계가 있었고, 태도는 심리적 안녕감과 약한 부적 상관관계($r=-.25, p<.001$)가 있었으나 노화 불안과는 정적 상관관계($r=.41, p<.001$)가 있었으며, 노화불안과 심리적 안녕감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r=-.52, p<.001$)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노인간호역량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인간호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확인하고,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추후 연구 및 노인간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aging anxie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nursing students, and to verify the correlation between each of these variables. The subjects were 263 junior and senior students enrolled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at two universities in G city. Data were collected using a google online questionnaire and analyzed using the SPSS/WIN 26.0 program. The knowledge score of the nursing students regarding the elderly was 20.63, and their attitude score toward the elderly was 76.88, which was neutral. The aging anxiety score was 48.21, an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score was high at 78.51. The knowledge regarding the elderly was very weakly correlated with psychological well-being ($r=.15, p=.002$) and aging anxiety ($r=-.16, p=.009$). The attitude towards the elderly had a weak negative correlation with psychological well-being ($r=-.25, p<.001$), but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ging anxiety ($r=.41, p<.001$). There was also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ging anxie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r=-.52, p<.001$). Based on these results, further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identify various factors that affect the nursing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with respect to elderly people. Also, it is necessary to set the direction of geriatric nursing education for nursing students and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same.

Keywords : Elderly, Knowledge, Attitude, Aging Anxiety, Psychological Well-being, Nursing Student

*Corresponding Author : Seon Hee Kim(Honam Univ.)

email: gounbabo@hanmail.net

Received September 26, 2022

Accepted November 4, 2022

Revised October 26, 2022

Published November 30, 2022

1. 서론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약 815만 명, 2022년 약 902만 명, 2024년에는 1,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0년 15.7%에서 급속하게 증가하여 2025년 20.3%, 2035년에는 약 3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 이러한 인구 고령화는 노인간호 요구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과 요양급여 적용 인구 중 노인 진료 인원의 뚜렷한 증가 추세(2019년 810만 명, 2020년 854만 명, 2021년 898만 명)와 2021년 기준 전체 진료비 중 43.4%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진료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2].

노인간호는 노인의 건강 상태를 포괄적으로 사정하고, 이를 근거로 간호 진단을 내리고 계획을 수립하여 중재를 제공한 후 그 효과까지 평가하는 간호전문직의 한 분야로,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면서 간호사는 노인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경제적, 영적인 부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노인간호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상자가 생의 말기까지 최적의 건강과 기능 상태를 유지하며 가치 있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상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노인을 돌보는 간호사는 질병에 대한 전문지식은 물론 전인적인 관점에서 노인을 이해하고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3].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노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에 영향을 미치며[4], 이는 노인 대상자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 및 인지 기능에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5]. 환자-간호사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치료적 도구로 활용해야 하는 간호사는 특정 대상에 대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편견 등을 경계해야 한다. 노인인 권중합보고서[6]에 따르면,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세대 간 인식변화와 노인 부양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청년층 80%가 노인에 대해 부정적 편견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 추세에 발맞추어 추후 병원이나 지역사회 등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노인에게 직·간접 간호를 제공해야 할 간호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를 반복 확인할 필요가 있다.

노화 불안은 노이가 드는 것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의 복합된 정서 상태로[7], 높은 수준의 노화 불안은 노인에 대한 편향된 태도와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노화 과정에서도 심리적 안녕감을 저하시킬 수 있다

[8,9]. 노화 불안 관련 연구는 주로 중·노년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고[10], 간호사 대상 연구는 노후 준비 영향 요인으로 노화 불안을 보고하였을 뿐이며[11], 일반 대학생 [12-14]이 아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화 불안 관련 선행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심리적 안녕감은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을 반영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잘 기능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15],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자기 행동이나 주위 환경을 조절 및 통제할 수 있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15].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16], 정서지능[17], 감사성향[18], 문화적 역량[19] 등의 개인의 다양한 특성이 심리적 안녕감의 긍정적 관련 요인으로 밝혀져 있으며, 중년 여성의 노화 불안과 심리적 안녕감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는 바[20], 노인간호 교육의 방향성 설정과 구체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노화 불안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파악해 보는 시도가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은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인의 높은 의료·보건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 각종 지역사회 기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노인 대상자와 최접점에서 간호를 제공할 예비의료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 노인간호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노화 불안 및 심리적 안녕감 정도를 확인하고,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노화 불안 및 심리적 안녕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연구의 대상은 G 광역시 소재 총 2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병원, 보건소, 보건의로 유관기관 등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3, 4학년 학생이며, 교양 수업의 비중이 높은 1학년 학생과 현장실습 경험이 없는

2학년 학생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상관분석을 위한 최소 표본크기는 134명으로,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양측검정, 유의 수준 .05, 검정력 .95의 조건에서 Cohen[21]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 표본수는 간호학과 3, 4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선행연구 [22]의 탈락률 약 40%를 고려하여 188명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동시다발적으로 수집되는 온라인 설문조사의 특성에 따라 총 266명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3명을 제외한 263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2.3 자료 수집 및 윤리적 고려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해당 대학 간호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개 대학 간호학과 3, 4학년 학생에게 연구목적과 방법 및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한 연구 참여에 관해 설명하고, 구글 설문지 링크를 전송하였다.

자료는 2021년 6월 28일부터 2021년 7월 2일까지 구조화된 자기 보고식 구글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온라인 설문지에 명시되어 있는 설명문과 동의서(연구의 목적과 방법, 익명성 보장,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됨, 설문지 작성 중단 및 작성 완료 후 철회 가능, 중단 또는 철회 시 불이익 없음 등)를 읽은 후 연구 참여 동의에 관한 1번 문항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다음 2번 문항에 응답할 수 있게 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15~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연락처 제공에 동의한 참여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2.4 연구 도구

2.4.1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지식은 정상적인 노화, 노년기의 주요 문제, 다양한 노인성 질환 및 간호 중재 등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23], Kim과 Lee[24]가 번안한 Dikken 등[23]의 노인 환자에 대한 지식-질문(The Knowledge about Older Patients-Quiz, KOP-Q)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총 30문항의 진위형 척도로 각 문항에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정답일 때 1점, 오답일 때 0점을 부여한다(* 정답 문항: 2, 3, 4, 5, 11, 12, 13, 15, 17, 18, 20, 23, 28, 29). 점수의 범위는 0~30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Dikken 등

[2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Kuder-Richardson Formula 20 (KR-20)은 .70이었고, Kim과 Lee[24]의 연구에서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는 평균 .9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KR-20은 .91이었다.

2.4.2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태도는 노인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관점을 의미하며[25], Lim 등[26]이 번안한 Sanders 등[25]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총 20문항의 의미분별척도(7점 척도)로 대칭적 형용사 쌍으로 표현된 각 문항의 연속선 위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1점은 매우 긍정적이며, 7점은 매우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역 환산 문항: 3, 6, 7, 10, 12, 15, 18). 점수의 범위는 20~140점이며(문항당 1~7점), 70~90점(문항당 3.5~4.5점)은 중립적, 70점 미만은 긍정적, 90점 초과는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Sanders 등[25]의 연구에서는 .90이었고, Lim 등[26]의 연구에서는 .8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4였다.

2.4.3 노화 불안

노화 불안은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의 복합된 정서 상태를 의미하며[7], Lasher와 Faulkender[9]가 개발한 총 20문항의 노화 불안 척도(Anxiety about Aging Scale, AAS)를 Kim 등[27]이 번안하고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총 17문항의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로 상실에 대한 두려움(6문항), 노인에 대한 두려움(4문항), 외모에 대한 걱정(4문항), 심리적 불안정(3문항)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17~85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노화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역 환산 문항: 1, 7, 8, 10, 12, 13, 15, 16).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Lasher와 Faulkender[9]의 연구에서는 전체 .82, 상실에 대한 두려움 .71, 노인에 대한 두려움 .78, 외모에 대한 걱정 .74, 심리적 불안정 .69였고, Kim 등[27]의 연구에서는 전체 .83, 상실에 대한 두려움 .78, 노인에 대한 두려움 .81, 외모에 대한 걱정 .79, 심리적 불안정 .7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84, 상실에 대한 두려움 .83, 노인에 대한 두려움 .77, 외모에 대한 걱정 .77, 심리적 불안정 .72였다.

2.4.4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은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과 사회구성원으로서 잘 기능하는 것을 의미하며, Ryff[19]가 개발한 6개 하위영역, 총 54문항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를 Kim 등[28]이 번안 및 수정하고, Kim[29]이 요인분석을 통해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총 22문항의 5점 척도(전혀 아니다 1점~매우 그렇다 5점)로 환경조율(7문항), 자기수용(4문항), 자율존중(4문항), 긍정관계(4문항), 자아성장(3문항)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22~110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역 환산 문항: 3, 5, 8, 16, 19).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Kim[29]의 연구에서는 환경조율 .82, 자기수용 .74, 자율존중 .75, 긍정관계 .76, 자아성장 .7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환경조율 .80, 자기수용 .75, 자율존중 .77, 긍정관계 .72, 자아성장 .73이었다.

2.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WIN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노화 불안 및 심리적 안녕감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각 연구변수에 대한 정규성을 Kolmogorov-Smirnov test 및 왜도와 첨도로 확인한 후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노화 불안 및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ANOVA를, 사후검정은 Bonferroni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노화 불안 및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를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대부분은 여성(82.5%)이었으며, 과반수는 4학년(58.6%)이고 노인간호학이론을 수강(55.9%)하였으나 노인간호학실습 경험은 없었다(65.8%). 노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대상자는 30%였으며, 행복한 노

후를 위해 경제적 여유(42.3%)와 신체적 건강(38.4%)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많았고, 노후 준비 시점은 빠를수록 좋다(80.2%)고 응답한 대상자가 많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63)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46 (17.5)
	Female	217 (82.5)
Grade	3	109 (41.4)
	4	154 (58.6)
Theory of Geriatric Nursing	No	116 (44.1)
	Yes	147 (55.9)
Geriatric nursing practice	No	173 (65.8)
	Yes	90 (34.2)
Thinking about old age	Not at all vaguely	14 (5.3)
	Moderate	99 (37.7)
	More specifically	74 (28.1)
	Very specific	69 (26.2)
		7 (2.7)
Most necessary thing for a happy old age	Physical health	101 (38.4)
	Relaxed mind	24 (9.1)
	Economic leeway	111 (42.3)
	Good family relationship	21 (8.0)
	Good friend relationship	3 (1.1)
Appropriate role (work)	3 (1.1)	
Time to prepare for old age	from 30's	24 (9.1)
	from 40's	23 (8.7)
	from 50's	4 (1.5)
	after 60's	1 (0.4)
	faster the better	211 (80.2)

3.2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노화 불안 및 심리적 안녕감

노인에 대한 지식 점수는 20.63점이었고, 태도 점수는 76.88점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노화 불안 점수는 전체 48.21점(평균 2.84점)이었으며, 하위요인의 경우 평점 기준 상실에 대한 두려움(3.07점)이 가장 높았고, 외모에 대한 두려움(2.81점), 노인에 대한 두려움(2.80점), 심리적 불안정(2.47점)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 점수는 전체 78.51점이었으며, 하위요인으로 환경조율과 긍정관계의 평점이 각각 3.85점, 3.74점으로 높았고, 자아성장의 평점은 3.25점으로 가장 낮았다(Table 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Research Variables (N=263)

Variables	Sub-category	M±SD
Knowledge of the elderly		20.63± 2.76
Attitude of the elderly		76.88±14.06
Aging anxiety	All	48.21± 8.13
	Fear of loss	18.40± 3.87
	Fear of the elderly	11.18± 2.84
	Fear of appearance	11.24± 3.22
	Psychological concerns	7.40± 1.57
Psychological well-being	All	78.51± 6.97
	Environmental mastery	26.93± 3.05
	Self-acceptance	13.62± 2.36
	Autonomy	13.26± 2.04
	Positive relations	14.94± 1.82
	Personal growth	9.75± 1.51

M=Mean; SD=Standard Deviation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노화 불안 및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노화 불안 및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노인에 대한 지식은 학년($t=-3.32, p=.001$), 노인간

호학이론 수강 여부($t=-3.09, p=.002$) 및 노인간호학실습 경험 여부($t=-2.44, p=.016$)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4학년이 3학년보다, 노인간호학이론을 수강한 경우와 노인간호학실습을 경험한 경우가 노인에 대한 지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노후에 관한 사고의 구체화 정도($F=2.62, p=.035$)와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것($F=2.68, p=.022$)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증 결과, 노후에 관한 사고의 구체화 정도만 범주별 차이가 있었는데, 노후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경우가 막연하게 생각해 본 경우보다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노화 불안은 성별($t=-2.09, p=.038$)과 노인간호학실습 경험 여부($t=1.98, p=.049$)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그리고 노인간호학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 노화 불안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은 학년($t=-2.12, p=.035$)과 노인간호학실습 경험 여부($t=-3.30,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4학년이 3학년보다, 그리고 노인간호학실습을 경험한 경우가 심리적 안녕감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3. Differences in Research Variable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63)

Characteristics		Knowledge		Attitude		Aging anxiety		Psychological well-being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Gender	Male	21.09± 2.56	1.24	76.24±15.24	-0.34	45.96± 9.66	-2.09	79.37± 7.07	0.93
	Female	20.53± 2.79	(.218)	77.01±13.83	(.735)	48.69± 7.71	(.038)	78.32± 6.95	(.356)
Grade	3	19.98± 2.58	-3.32	77.49±11.44	0.62	49.22± 7.93	1.70	77.43± 7.25	-2.12
	4	21.09± 2.79	(.001)	76.45±15.68	(.535)	47.50± 8.22	(.091)	79.27± 6.68	(.035)
Theory of Geriatric Nursing	No	20.06± 2.59	-3.09	77.43±11.25	0.59	48.97± 7.86	1.35	77.78± 7.21	-1.50
	Yes	21.08± 2.82	(.002)	76.44±15.96	(.557)	47.61± 8.31	(.178)	79.07± 6.74	(.136)
Geriatric nursing practice	No	20.34± 2.72	-2.44	77.95±11.83	1.53	48.92± 7.49	1.98	77.50± 6.91	-3.30
	Yes	21.20± 2.75	(.016)	74.81±17.46	(.127)	46.84± 9.12	(.049)	80.43± 6.70	(.001)
Thinking about old age	Not at all	20.29± 2.97	0.61 (.656)	80.07±11.61	2.62 (.035)	49.36± 8.66	0.84 (.500)	77.57±10.03	2.25 (.064)
	Vaguely ^a	20.51± 2.70		78.63±11.07		49.07± 8.22		78.04± 6.70	
	Moderate	20.57± 2.86		75.69±14.98		47.86± 6.38		77.80± 6.35	
	More specifically	21.03± 2.68		76.46±16.04		47.48± 8.88		79.46± 6.38	
	Very specific ^b	19.86± 3.13		62.43±18.86		44.71±13.88		85.00±11.97	
Most necessary thing for a happy old age	Physical health	20.64± 2.87	2.07 (.070)	74.99±13.56	2.68 (.022)	47.59± 8.78	1.04 (.398)	79.19± 6.77	1.03 (.400)
	Relaxed mind	20.71± 2.01		73.42±10.27		47.46± 7.08		77.50± 7.27	
	Economic leeway	20.71± 2.82		79.89±13.74		48.91± 7.90		78.30± 6.64	
	Good family relationship	20.86± 2.26		71.76±19.40		46.76± 7.43		78.71± 9.09	
	Good friend relationship	15.67± 2.89		84.67± 8.08		53.33± 4.04		71.00± 8.66	
	Appropriate role (work)	20.00± 1.73		84.67± 3.21		54.33± 7.02		77.33± 1.53	
Time to prepare for old age	from 30's	20.58± 3.16	1.58 (.195)	77.71±12.46	0.58 (.627)	48.79± 6.84	0.06 (.979)	77.96± 6.50	0.76 (.517)
	from 40's	20.78± 2.52		80.04± 9.62		47.78± 7.39		77.30± 6.28	
	from 50's & after 60's	18.00± 3.67		73.00±28.09		48.40±15.37		82.20±13.72	
	faster the better	20.68± 2.70		76.53±14.26		48.19± 8.19		78.61± 6.91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4. Correlation between Research Variables

Variables	Knowledge of the elderly	Attitude of the elderly	Aging anxiety	Psychological well-being
	r(p)			
Knowledge of the elderly	1			
Attitude of the elderly	-.01(.834)	1		
Aging anxiety	-.16(.009)	.41(<.001)	1	
Psychological well-being	.15(.002)	-.25(<.001)	-.52(<.001)	1

3.4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노화 불안 및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심리적 안녕감($r=.15$, $p=.002$) 및 노화 불안($r=-.16$, $p=.009$)간의 상관관계수 값은 매우 작았으나 유의확률 p 값은 높게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심리적 안녕감과 약한 부적 상관관계($r=-.25$, $p<.001$), 노화 불안과 정적 상관관계($r=.41$, $p<.001$)가 있었다. 또한 노화 불안과 심리적 안녕감은 부적 상관관계($r=-.52$, $p<.001$)가 있었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노화 불안 및 심리적 안녕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간호대학생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노인간호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점수는 30점 만점 기준 20.63점이었으며, 정답률은 68.8%였다. 지식 점수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동일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 22.50점보다 다소 낮았으며 [24], 도구는 다르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Ha와 Park[30], Kim[31], Kim 등[32]의 연구에서의 정답률(각각 49.7%, 59.1%, 58.3%)보다 높았다. 본 연구의 높은 정답률은 전체 학년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던 선행연구[30,32]와 달리 3, 4학년만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던 점과 측정 도구의 차이로 인한 결과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 환자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신뢰도와 타당도 측면에서 비판을 받는 Facts on Aging Quiz (FAQ)[33]가 아닌 Kim과 Lee[24]가 도구 번역 절차에 따라 번안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The Knowledge about Older Patients-Quiz (KOP-Q) 도구를 사용했다. KOP-Q 도구를 사용한 국내 연구가 상급종합병원 간호사[24]와 암 병원 간호사[34] 대상 연구가 거의 전부인 실정임을 감안하면 본 연구는 측정 도구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한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은 3학년보다 4학년 학생의 점수가 높았고, 노인간호학이론 교과목을 수강했거나 노인간호학실습을 경험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점수가 높았다. 이는 2학년의 점수가 가장 낮게, 3학년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Kim 등 [32]의 결과와 유사하며, 이론 교과목 수강 여부와 실습 경험 여부에 따른 지식 점수의 차이는 관련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워 비교하기 어려우나 당연한 결과로 생각된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간호 수요 증가에 발맞춰 노인을 돌보는 간호사가 노인이나 노화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노인간호학이론과 실습 교육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과정 개선 및 확대, 노인간호 교육내용의 표준화, 국가고시 과목 선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는 76.88점(범위: 20~140점)이었으며, 절단 점(70점 미만: 긍정적, 90점 초과: 부정적)을 기준으로 할 때 긍정에 가까운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동일 도구로 간호대학 1~4학년 재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Ha와 Park[30]의 보고(51.68점) 보다 덜 긍정적이었으며, 간호대학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31]과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과 Lee[24]의 보고(각각 81.80점, 87.17점)와 유사하였다. 이는 한층 심화한 간호학 이론 교과목을 수강하고, 임상 현장실습을 경험하게 되는 간호학과 3, 4학년 학생들이 건강한 노인보다 질병이 있는 노인의 건강 문제에 대한 더 많이 접근하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에 긍정적인 경험을 할

기회가 적어서 나타난 차이, 즉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일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는 노인에 대한 지식과 다르게 3학년과 4학년의 차이, 이론 교과목 수강 여부와 실습 경험 여부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별이나 노인 교육 경험 등 사회 인구학적 특성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한 일반 대학생 대상 선행연구[35]의 보고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3학년보다 4학년 학생이, 노인간호학이론을 수강했거나 노인간호학실습을 경험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조금 더 긍정적이었으며, 노후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해 본 경우보다 매우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Allport[36]에 따르면, 태도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려고 하는 학습된 성향으로 인지, 정서, 행동의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요소들은 각각 지식, 가치,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되고, 변화된 태도의 결과는 다시 지식, 가치,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37]. 노인에 대한 태도가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노인을 돌보는 태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점 등을 고려할 때[31], 미래 간호의 주역인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노인간호 교육 또는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노화 불안 점수는 총점 48.21점(평균점 2.84점)이었으며, 하위요인 중 상실에 대한 두려움(3.07점)이 가장 높았고, 외모와 노인에 대한 두려움은 각각 2.81점, 2.80점으로 유사하였으며, 심리적 불안정(2.47점)이 가장 낮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유사체험 직후 측정된 간호학과 2학년 학생[38]과 20대 간호사[11]의 노화 불안 평균점(각각 3.23점, 3.18점)보다 낮았으며, 외모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게 나타난 Jeong 등[38]의 보고와 차이가 있었다. 또한 하위요인의 차이는 노인유사체험을 통해 갑작스러운 신체적 노화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느꼈을 두려움의 상황적 특성 때문으로 추측되나, 전체적인 노화 불안 점수의 차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노화 불안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39]의 결과와 다르게 나타나 노화 불안 관련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화 불안은 남학생보다 여학생, 그리고 노인간호학실습을 경험한 학생보다 경험하지 않은 학생의 노화 불안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

구의 결과로 나타난 성별에 따른 노화 불안의 차이는 여성의 노화 불안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한 메타분석 결과[10]를 통해 지지할 수 있으며, 실습을 경험한 학생의 노화 불안이 낮은 이유는 추후 연구나 연구대상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높은 수준의 노화 불안은 노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 및 자신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므로[8,9] 간호대학생의 노화 불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점수는 전체 총점 78.51점(범위: 22~110점, 평균점 3.57점)으로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며, 4학년과 노인간호학실습을 경험한 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G시 소재 2개 대학 간호학과 재학생 대상 선행연구[16]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노화 불안이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은 노화 불안의 영향 요인[10]임을 참작하면, 노인간호 교육프로그램 설계 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규명된 심리적 안녕감의 영향 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노화 불안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노인에 대한 지식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게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노화 불안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상관계수의 값이 매우 작아 유의미한 결과로 해석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노인에 대한 지식이 낮을수록 노화 불안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40]와 본 연구로부터 최종 도출된 노화 불안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부적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노인에 대한 지식이 낮으면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도 저하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노화 불안과 심리적 안녕감의 부적 상관관계는 노화 불안을 심리적 안녕감의 영향 요인으로 보고한 선행연구[10]를 통해 지지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다음, 노인에 대한 태도는 심리적 안녕감과 약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노화 불안과 보통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태도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부적 상관관계는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면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도 높게 나타남을 의미하며, 이는 Allport[36]의 태도에 관한 관점과 유사하다. 전반적인 삶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와 인지적 평가를 의미하는 심리적 안녕감[15]은 어떤 사람에 대한 개인의 태도, 즉 지식이나 신념과 같은 인지적 요소와 가치나 감정과 같은 정서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개인의 태도[36]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화 불안 간의 정적 상관관계는 노인에 대한 태

도가 부정적이면 노화 불안이 높게 나타남을 의미하며, 이는 노인에 대한 편향된 태도의 영향 요인으로 노화 불안을 규명한 Liu 등[8]의 보고와 일치한다. 반면,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간호학과 1~4학년 재학생 대상 연구[30,32]와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 대상 연구[31] 및 간호사 대상 연구[24]의 보고와 일치하였으나 상관관계가 있다고 확인된 치위생학과 학생 대상 연구[41]의 보고와 차이가 있었기에 이러한 차이를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일치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 간호교육이 주로 지식을 전달하는 데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양질의 인문학적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 나아가 산학연구협력을 통해 가상현실이나 혼합현실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노인생애체험 및 노인간호 프로그램과 같은 콘텐츠 제작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는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 대상자의 건강 특성상 접촉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인간호 몰입도를 향상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G 광역시 소재 총 2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노화 불안 및 심리적 안녕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점수는 30점 만점 기준 20.63점, 정답률은 68.8%였으며, 학년, 노인간호학이론 수강 여부, 노인간호학실습 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는 76.88점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노후에 대한 사고의 구체화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노화 불안 점수는 총점 48.21점(평균 2.84점)이었으며, 하위요인 중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았고, 심리적 불안정이 가장 낮았다. 또한 성별과 노인간호학실습 경험 여부에 따라 노화 불안의 차이가 있었다. 노인에 대한 지식은 심리적 안녕감 및 노화 불안과 매우 약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태도는 심리적 안녕감과 부적 상관관계, 노화 불안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노화 불안과 심리적 안녕감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부족한 간호대학생의 노화 불안 정도를 확인한 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선행연구에서 노화 불안과 관련이 있었던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점,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고취와 노화 불안 완화 및 심리적 안녕감 증진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됨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에 국한하여 2개 대학의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자를 편의표집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으므로 연구 지역과 대상자의 확대 및 무작위 표집을 통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궁극적으로 노인간호 행위 관련 변수가 조사되지 않았기에 직·간접적인 행위 변수를 포함해 영향 요인을 검증함으로써 더 나은 노인간호 교육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간호대학생 대상 노인간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통해 긍정적인 노인간호 행위를 증진할 수 있는 실험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Future Population Estimate [Internet]. Statistics Korea, [cited 2022 September 3]. Available From: <https://kosis.kr/index/index.do> (accessed Sept. 25, 2022)
- [2]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22). Medical review/evaluation guidelines in hand in 2021. [Internet]. HIRA, [cited 2022 September 4]. Available From: <https://www.hira.or.kr/main.do> (accessed Sept. 25, 2022)
- [3] Y. K. Kim, S. Kwon, "Effects of empathy and attitude in caring for elders by nurses in geriatric nursing practice in long-term care hospital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19, No.3, pp.203-213, 2017. DOI: <https://doi.org/10.17079/jkgn.2017.19.3.203>
- [4] J. Kim, J. Ha, "Factors influencing ageism in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5, No.5, pp.393-403, 2019.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9.25.5.393>
- [5] D. A. Robertson, B. L. King-Kallimanis, R. A. Kenny, "Negative perceptions of aging predict longitudinal decline in cognitive function", *Psychology and Aging*, Vol.31, No.1, pp.71-81, 2016. DOI: <http://dx.doi.org/10.1037/pag0000061>
- [6]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Report on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 p.109.

- [7] S. M. Lynch, "Measurement and prediction of aging anxiety", *Research on Aging*, Vol.22, No.5, pp.533-558, 2000.
DOI: <http://dx.doi.org/10.1177/0164027500225004>
- [8] Y. E. Liu, I. J. Norman, A. E. While, "Nurses' attitudes towards older people and working with older patients: an explanatory model",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Vol.23, No.8, pp.965-973, 2015.
DOI: <https://doi.org/10.1111/ionm.12242>
- [9] K. P. Lasher, P. J. Faulkender, "Measurement of aging anxiety: development of the anxiety about aging scal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37, No.4, pp.247-259, 1993.
DOI: <http://dx.doi.org/10.2190/1U69-9AU2-V6LH-9Y1L>
- [10] I. Kim, G. Kim, "The meta-analysis on variables related to aging anxiety of middle and old aged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38, No.2, pp.309-327, 2018.
- [11] S. Kang, H. Yeom, "The influence of care stress for older patients, self-perceptions of aging, aging anxiety on retirement preparation in nurs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30, No.4, pp.175-185, 2021.
DOI: <https://doi.org/10.5807/kjohn.2021.30.4.175>
- [12] S. Han, H. Kim, "Influences on the aging anxiety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2, pp.1164-1174,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2.1164>
- [13] W. Kim, "The effect of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on anxiety about aging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1, No.6, pp.421-442, 2014.
- [14] M. H. Kim, "The influence of elderly contact, attitudes toward elderly and death anxiety on aging anxiet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 Vol.19, No.3, pp.435-456, 2013.
- [15] C. D. Ryff,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7, No.6, pp.1069-1081, 1989.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57.6.1069>
- [16] J. A. Park, J. Y. Hong, "Factors influencing psychological well-being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4, pp.448-457,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4.448>
- [17] S. M. Hong, "Convergence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ocial support on 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3, No.4, pp.1-10, 2019.
- [18] H. Choi, H. Jeong, "The impact of grit, gratitude disposition and stress on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nursing stud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8, No.1, pp.70-79, 2022.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22.28.1.70>
- [19] E. Lee, S. E. Lee, "Cultural compet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35, No.3, pp.963-974, 2018.
DOI: <https://doi.org/10.12925/jkocs.2018.35.3.963>
- [20] O. J. Yang, S. L.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aging anxie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life adults: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cognitive flexibility and subjective economic statu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0, No.7, pp.491-502, 2020.
DOI: <https://doi.org/10.5392/JKCA.2020.20.07.491>
- [21] J. Cohen,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8.
- [22] S. M. Park, H. J. Choi, "A comparative study on perception of forest activities effects and academic stres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 No.12, pp.167-174, 2021.
DOI: <https://doi.org/10.5392/JKCA.2021.21.12.167>
- [23] J. Dikken, J. G. Hoogerduijn, M. J. Schuurmans, "Construct development, description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knowledge about older patients quiz (KOP-Q) for nurses", *Nurse Education Today*, Vol.35, No.9, pp.54-59, 2015.
DOI: <http://dx.doi.org/10.1016/j.nedt.2015.06.005>
- [24] E. J. Kim, K. H. Lee, K. H. "Knowledge, attitude, and performance of nurses in a tertiary hospital toward older adult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22, No.2, pp.165-173, 2020.
DOI: <https://doi.org/10.17079/jkgn.2020.22.2.165>
- [25] G. F. Sanders, J. E. Montgomery, J. F. Pittman, C. Balkwell,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Vol.3, No.1, pp.59-70, 1984.
DOI: <http://dx.doi.org/10.1177/073346488400300107>
- [26] Y. S. Lim, J. S. Kim, K. S. Kim,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22, No.1, pp.31-46, 2002.
- [27] S. N. Kim, S. O. Choi, K. I. Shin, J. H. Lee, "Validation of the anxiety about aging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17, No.3, pp.292-301, 2008.
- [28] M. S. Kim, H. W. Kim, K. H. Cha, "The analysis of the component concepts on psychological well-being: korean men and women",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15, No.2, pp.19-39, 2001.
- [29] M. S. Kim, A study on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facility worker's job involvement and quality of service, Ph.D

dissertation, Nazarene University, Cheonan, Korea, 2018.

- [30] J. Ha, J. Y. Park, "Factors affecting the social distance toward older adul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ing*, Vol.30, No.4, pp.539-549, 2019.
DOI: <https://doi.org/10.12799/jkachn.2019.30.4.539>
- [31] H. J. Kim, "Factors affecting the nursing students' attitude toward care of the elderl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6, No.12, pp.213-222, 2016.
DOI: <https://doi.org/10.5392/JKCA.2016.16.12.213>
- [32] S. O. Kim, H. S. O, M. S. Wang, "A study on the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 towards the elderly",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2, No.2, pp.163-170, 2016.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6.22.2.163>
- [33] E. B. Palmore, "The facts on aging quiz: Part two", *The Gerontologist*, Vol.21, No.4, pp.431-437, 1981.
DOI: <http://dx.doi.org/10.1093/geront/21.4.431>
- [34] S. A. Lee, Y. W. Lee, "A Study of Knowledge, Attitudes, and Educational Needs for Gerontological Nursing in Cancer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23, No.4, pp.384-394, 2021.
DOI: <https://doi.org/10.17079/jkgn.2021.23.4.384>
- [35] E. O. Song,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 elderly", *Journal of Social Welfare Management*, Vol.5, No.1, pp.157-179, 2018.
- [36] G. W. Allport,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modern psychology",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1(-), 1954.
- [37] Y. Hong, Exploration of instructional principles and developing an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attitude formation and change, Ph.D dissertation,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2014.
- [38] H. S. Jeong, J. S. Han, J. H. Kim, "Influence of the senior simulation program on aging anxie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1, No.12, pp.832-843, 2011.
DOI: <https://doi.org/10.5392/JKCA.2011.11.12.832>
- [39] H. Kim, J. Yang, E. J. Choi, "A Study of knowledge about aging and aging anxiety",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32, No.-, pp.135-165, 2009.
- [40] H. Choi, S. Chung, "Anxiety toward later life and aging society-focused on the association between knowledge and attitudes and anxiety",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40, No.2, pp.91-116, 2012.
- [41] H. Lee, H. Lee, "Dental hygiene students' knowledge of and attitudes and behavior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Vol.9, No.2, pp.30-38, 2021.
DOI: <https://doi.org/10.33615/jkohs.2021.9.2.30>

김 선 희(Seon Hee Kim)

[정회원]



- 2003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16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19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9년 3월 ~ 현재 : 호남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습관형성, 운동이행, 기본간호, 노인